

■ 교회소식 ■

1. 청파성서학당 : 오늘 오후집회는 청파성서학당입니다.
2. 교육부회의 : 오늘 12:20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3. 준비모임 : 오늘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가을 나들이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4. 교역자회의 : 중구용산지방 7월 교역자 회의가 10일(화) 오전 7시 청파교회에서 있습니다.
5.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0일(화) 오전 10시 필동교회에서 있습니다.
6. 신앙실천 :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 간편 차림 복장으로 오십시오. (과도한 냉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다음 주 설교 본문	막 6:14-16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조항범	김문주	

7월	1부 영접위원	이순용	헌금위원	김민화
	2부 영접위원	김정민 이국노 문홍일 이해령 최은미 양경해		
	2부 헌금위원	이한림 정경례		

오늘 식당 봉사	진정숙 최윤희 정연경 류형민 강경화 홍윤선 이용석 최형균		
다음주식당봉사	박영신 박미연 이수자 이미휘 조미선 채옥춘 김종락 설규범		
오늘설거지봉사	4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신정훈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7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경배의 찬송 23.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산과 들에 내린 빗물이 모여들어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듯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 교회를 이룬 이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늘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물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낮은 이와 힘없고 연약한 이에게 자주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려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문 수많은 장벽을 혐오와 두려움으로 다시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130:7,8 인도자
 ▲ 교 독 문 83. 빌립보서 4장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한림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 함께
 ▲ 성경봉독 고후 6:14-7:1 I. 인도자
 II. 정원석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네 마중물 찬양대
 II.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청파 찬양대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세기 이소애 곽정자 구명자 구재원 권미숙 권선원 김경혜 김광일 이부용
 김금순 김기철 김나름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형일 김미숙 김병대 김성우
 박유경 김수진 김숙희 김애순 김영순 김예준 김은옥 김인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종문 지명주 김지훈 김필순 김형근 김혜영 김홍수 남명진
 김애정 남선옥 남윤경 마재국 손의나 문금석 문복순 박규석 박경선 박기영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신연화 박석원 양선용 박영진 박영희 박재우 정충원
 박준민 최광희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윤 박해숙 배삼순 백묘현 서수진
 서이순 서해나 소광섭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민용 왕수명 원용일 최현선
 유경주 유중희 이동천 이시경 이완구 이유선 이은주 이응석 이은경 이재삼
 전정현 이한림 김명희 임명희 장동훈 정은선 전현선 정두리 정재우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조두희 오연훈 조병무 송양진 조순덕 진평호 최미자 최 숙
 최옥자 최윤선 최 현 최형민 최희영 한선희 허호범 박성실 홍윤선 홍춘숙
 황현성 이오복 무명1

감사헌금

김기석 김경미 김나름 김반야 김영호 김태정 문복순 박재영 이현정 백혜숙
 윤선호 임선아 윤영주 이건호 이명희 한봉섭 이선행 이유일 김미희 이재필
 김일재 이지행 김민성 임형욱 장현희 전길남 김경희 무명3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김현주 박병구

녹색꿈헌금

권미숙 김향자 오미경 오민용 이인용 무명3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마음으로 읽는 글 ■

흙

- 문정희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흙, 흙 하고 불러보면
 심장 그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흙은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의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또한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흙의 일이므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의 메아리가 들려온다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
 자신을 퍼 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말씀	거룩함을 향한 여정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유성도 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 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불의와 어둠과 악을 멀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빛과 선을 가까이하며 사십시오. 꾸준한 발걸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주님,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할 거룩함에 대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이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청파성서학당 / 강의 :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 사르데냐 칼리아리에서 가난한 이들과 난민 수용소 사람들을 만나서 -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서 ‘삶의 고단함’을 봅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희망’도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좋은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 곧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호의를 베푸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기가 저의 집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주교좌 성당을 집처럼 느끼기를 바랍니다. 마치 라틴아메리카에서 흔히 “이 집은 여러분의 집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형제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신 아버지와 한 분이신 스승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승이자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모시는 기쁨을 나눠 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큰 힘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겸손과 봉사의 길을 선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스스로 사람이 되셨지요.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관심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분은 저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곧 그분은 종과 같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치실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삶 그 외의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덕’은 그저 원조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물질적인 원조로만 생각하는 이런 ‘복지주의’는 단지 편안한 조건들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져가며 사랑하는 것은 물건 파는 가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거저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애덕과 사랑’은 살아가고 존재하는 방식, 곧 삶 자체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겸손함, 온유함, 연대감’ 말고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연대감’은 오늘날 자신에게 유용하고 절대적이고 깨끗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폐기 처분의 문화’에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이 연대감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요즘 우리에게 성가시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아주 귀찮고 성가시게 생각합니다. 이 단어의 덕목에 따르자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른 이들을 살피야만 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 단어를 지우는 것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그저 도덕적 원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은 현실적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작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좀 더 좁은 곳에 머물며, 소외된 이와 함께하고, 우리 모두와 같은 죄인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주의하세요. 이것은 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 하느님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 존재와 삶의 방식입니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인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 협력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한계와 실수에 대해 용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고 너그럽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는 마음이 거기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애덕과 상냥함과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과 함께 말이지요. ...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내 삶의 영역을 넘어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를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고후5:14)라고 했죠. 좋은 목자는 자고로 먼 곳이나 외곽이라도 희망을 잃고 외로워하여 다급하게 돌보아야 하는 대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심과 주의의 대상을 스스로 고를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선적인 대상은 언제나 ‘보다 부족한 이들’, 곧 ‘없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 말입니다. ...

- 프란치스코 교황, 「뒤틀림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가톨릭출판사) 중